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 김포공항 개항 60주년 행사 참석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소재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한 '김포공항 개항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김포공항이 국내 중추 공항으로서 저비용 항공사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통해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견인해줄 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

한국서부발전

◆처장(갑) ▲신재생사업 처장 장광규 ▲신재생사업

처 실장(동두천드림파워 과전) 한상문 ▲관리처장 정태호 ▲관리처 노무복지부장 윤승철 ▲발전운영처장 최용범 ▲건설처장 김영남 ▲태안발전본부 연소환경실장 박상용 ▲태안발전본부 제2발전처장 박현철 ▲평택발전본부 복합발전실장 이순상
◆처장(을) ▲감사실 감사전략부장 김성도 ▲국정과제추진실 홍보부장 이세문 ▲해외사업처 사업개발부장 이흥택 ▲신재생사업처 신에너지사업부장 문재중 ▲기획처 미래대응전략실장 김종균 ▲관리처 총무부장 송승남 ▲발전운영처 연료조달실장 강세훈 ▲발전기술처 4차산업총괄부장 이상용 ▲건설처 기전부장 이희익 ▲안전품질처 재난안전부장 김향기 ▲태안발전본부 부장(세남노이 수력 SPC 과전) 박준석 ▲태안발전본부 환경설비부장 강정구 ▲태안발전본부 IG기계부장 김재식 ▲태안발전본부 건설관리실장 이근우

인터뷰



고든 팔코너

슈나이더 일렉트릭 스마트시티 전략부사장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한 초연결 사회,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글로벌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인도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나이라 이푸르'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룹 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고든 팔코너 스마트시티 글로벌 전략 부사장이 최근 한국을 찾았다. '세계그린에너지포럼'에 참석한 그는 도시 혁신 전략가로 세계은행, EU 등 각종 기관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팔코너 부사장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철학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도시 내 물 공급과 소비를 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기술(OT)과 IT가 상호 작용하며 도시의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에너지, 보안, 철도 등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다.

팔코너 부사장은 OT는 스마트시티의 '기초체력'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스마트시티를 이루는 것은 IT와 OT라는 두 개의 축이지만 사람들은 IT만 주목한다"며 "OT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내 송수관에서 누수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은 IT가 아니라 OT"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각 시설을 운영하는 OT가 잘 갖춰져야 IT기술이

어나고 UN의 참여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UN이 도시,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코너 부사장은 반면 스마트시티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가 '커피 마시며 간단히 이야기 나누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수백결합기식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점과 장애물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7일 경주에서 열린 '월드그린에너지포럼'에 참석해 스마트시티의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역명의 실패사례들도 공유했다. 스마트시티 확산에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를 끌어낸 것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에코스트럭처 등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관련 솔루션 등을 내세우며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팔코너 부사장이 경쟁업체 대비 경쟁력을 묻자 "스마트시티 사업은 여러 사업이 모여져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선블리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슈나이더는 빌딩, 모빌리티, 에너지, 수도 등 스마트시티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전망이 밝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권익진 인턴기자 ejin@

스마트시티 성공, IT와 OT 접목이 좌우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참석 성공사례 외 실패사례도 공유

"스마트시티, 운영기술(OT)과 IT가 함께 갈 때 가능"

팔코너 부사장은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기술(OT: Operating Technology)'에 대한 관심"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려는 모든 나라가 OT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시티는 인프라 시설을 관장하는 운영기술(OT)과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IT 기술이 결합해 운영된다. 예컨대 송수관 등

더해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관심은 많지만 실질적 변화는 더뎠"

팔코너 부사장은 인터뷰 내내 스마트시티를 위한 '실질적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논의 자체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관심 위주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심을 보이는 도시나 기업들이 늘

김성환 의원, 에너지전환지원센터 개소... "전화·방문 상담 언제든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방)이 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열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인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의원실내에 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개소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속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지원센터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정책 및 법률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등을 통해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또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그룹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박정배 기자 pjb@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 한센협회 광주·전남지부장 취임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이 5일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제12대 지부장 취임식을 갖고 '한센인 복지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은 조태만·문유근·이기범·김경미·김선문씨 등 신임 운영위원을 비롯해 광주·전남도 관계자, 지재운 한국한센총연합회 광주·전남지부장, 광주·전남지부의 의료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류 지부장은 취임사에서 "한센인에 대한 복지를 실현하고 오해와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국가 정책에 부응해 노력하겠다"며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국내 한센 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지난 1948년 창설된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70여년간 한센병에 관한 진료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사회적 재활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광주·전남지부는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애양병원과 함께 1400여명의 한센인을 담당하고 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지원, 부설의원을 통한 자체 수입 등으로 한센사업 전반을 운영하고 있다.

재선 지부장 취임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이 5일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운영위원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지부장 취임식을 갖고 '한센인 복지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류 지부장은 "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가 하나된 힘을 통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임직원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는 한편 아낌없는 조인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최창봉 기자 ccb1970@

원자력, 러 원전 해체·폐기물 관련 국제협력 총괄기관과 포럼

한-러 간 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은 러시아 TENEX와 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러 미래 원자력 협력 포럼'을 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TENEX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공사(ROSATOM)의 산하기관으로 원전 기술 수출 및 원전 해체·발생 폐기물 관리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8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8차 한-러 정부 간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를 통해 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기술 협력 이행을 약속했으며, 관련 세부연구 협력 논의를 위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양 기관은 ▲원전 제염 해체 관련 공동 연구 방안 ▲방사성 처분기술개발 기술 교류 ▲원자력 전지 개발 현안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본 포럼은 종래의 민간·기관 간 기술협력과 달리 지난 6월 한-러 정상회담 공동선언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합동사향 이행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다.

정현진 인턴기자 jhj@

www.electimes.com
문의 : 02-2168-1300

전기사랑 X 스피치대회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민
●스피치주제 전기의 고마움과 소중함
●시상내역 대상(1명) 장관상 300만원 최우수상(1명) 상장 200만원 우수상(2명) 상장 100만원 장려상(3명) 상장 50만원
※상기 시상 내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h p://sp.electimes.com

주최 전기신문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소,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기사경제조합,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지역난방공사

LS산전 SK가스